

Korean A: language and literature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 : langue et littérature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 lengua y literatura – Nivel medio – Prueba 1

Friday 8 May 2015 (afternoon)
Vendredi 8 mai 2015 (après-midi)
Viernes 8 de mayo de 2015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n analysis on one text only.
-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e analyse d'un seul texte.
- Vous n'êtes pas obligé(e) de répondre directement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souhaitez.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análisis de un solo texto.
-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de orientación que se incluyen, pero puede utilizarlas si lo desea.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다음중 하나를 골라 그 글의 맥락, 독자, 글의 목적의 중요성 및 형식적·문체적 특징을 분석하는 글을 쓰십시오.

본문 1

끝없이 반복되는 밥상의 일일극

요리하는 남자들이 대세다. 적어도 텔레비전 예능에서만큼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오죽하면 “요리 솜씨로 여성을 매혹하는 남자”를 뜻하는 신조어도 생겼다. 미식가라는 뜻의 “게스트로놈”(gastronome)과 성적 매력을 뜻하는 “섹슈얼”(sexual)을 합친 “게스트로섹슈얼”이라는 단어다.

<삼시세끼>¹는 끝없이 반복되는 밥상의 일일극을 보여준다. 아침밥을 지어 먹고 뒷정리까지 마치고 나면 곧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고, 그 밥상을 물리고 나면 어느새 또 저녁 준비 시간이 다가오는 여성들의 일상적 가사노동 현장이 그 안에 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식구들을 위해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준비하는 여성들의 반복적 가사노동, 특히 그 고단함이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체험극을 보듯 시청할 때 더 재미있다. 조선시대 소박²의 조건이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며느리같이 아궁이³ 곁을 떠나지 못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노동”에서 벗어나 읍내로 마실⁴ 나갈 기회만 꿈꾸는 이서진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신구와 백일섭이 손님으로 등장한 2회는 더 노골적인 역할극이다. 이서진과 옥택연은 급작스럽게 방문한 시어머니를 맞은 며느리인 양 대접하느라 부산하고⁵, 그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일일이 지적하는 신구와 백일섭은 영락없이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를 닮았다. 세 번째 손님 김광규가 출연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노동의 수고를 덜어줄 일꾼을 학수고대하던⁶ 이서진은 마치 막내동서 부리듯 그를 다룬다.



이서진과 옥택연의 “집밥” 도전기를 그린 <삼시세끼> (tvN)에는 여성들의 일상적 가사노동 현장이 담겨 있다. tvN 제공

서구에서 “게스트로섹슈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의 주방 일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 시대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남녀의 공평한 가사분담이란 아직도 요원하다⁷.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사분담 조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기대와 실생활에서의 분담 실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실생활에서 분담하는 비율은 15%에 머물렀다. 맞벌이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실시한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 시간” 조사는 맞벌이 여성이 3.3시간 가사노동을 할 때 남성은 41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남자 요리 예능 프로그램의 증가와 인기는 많았다. 적어도 부엌 노동만큼은 그 전 과정을 이런 현실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여성들의 편집 없이 드러낸다는 것만으로도 <삼시세끼> 욕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의 존재는 꽤나 소중한 것이다. 요리는 여성들의 비가시적⁸인 노동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전시하는 판타지에 그치는 경우가

김선영 TV 평론가, <한겨레21> (2014)

-
- ¹ 삼시세끼: <삼시세끼>는 2014년 10월 17일부터 tvN에서 방영하는 텔레비전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서진과 옥택연, 두 남자의 밥짓기가 <삼시세끼>의 주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² 소박: 처나 첩을 인정없이 모질게 대함
- ³ 아궁이: 방이나 솔 따위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
- ⁴ 마실: 마을의 방언
- ⁵ 부산하고: 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어수선하고
- ⁶ 학수고대하던: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리던
- ⁷ 요원하다: 까마득하다. 멀다
- ⁸ 비가시적: 눈으로 볼 수 없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이고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사진과 사진의 설명은 이 기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설명하시오.

본문 2

“유산¹ 기부 결심하고 하루 만에 끝내”

Q “행복한 유산기부”에 동참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외동딸과 남편을 차례로 보내고 나자 한 친구가 ‘죽은 다음에 하지 말고 살았을 때 기부하라’는 조언을 해주었죠. 그게 옳은 일이라는 판단이 들어 그 길로 성남시청을 찾아갔어요. ‘유산기부’는 그렇게 하루 만에 완성이 됐죠. 성남동복지회관의 정안진 관장과 안호선 과장이 증인이 돼주었고 변호사 공중²도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유산 기부식도 가졌어요. 좀 부끄럽지만 내 평생 가장 신나는 하루였어요.”

Q 할머니의 전부나 다름없는 집을 떠날 일이 내놓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뒤가 아까울 게 있겠어요. 내가 못 살게 되면 정부에서 수급자³ 자격을 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평생토록 고생에 단련이 됐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부녀자와 아기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Q 지난 2006년엔 서울대병원에 “사후 장기 기증”도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할머니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평생 몸을 움직여 살아왔는데 왜 육신이 중하다는 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친구의 병문안을 갔다가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 법이라는 옛말이 원통하게 느껴져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하게 됐죠. 그 결심을 한 후로 나는 돈이나 물건에 얽매이는 병을 버리게 됐어요.”

Q 동년배 할머니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복지회관에 자주 놀러 오라고 하죠. 빨강고 파란 종이로 꽃을 접기도 하고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께 착하게 살다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드리고 또 맛있는 점심도 한 상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딸 노릇, 친구 역할에 충실한 성남동복지회관 정안진 관장 덕분에 웃을 일이 많다고 얘기한다.

<아름다운 약속 “레거시 클럽”에 동참하세요>



레거시 클럽

3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유산 기부자 모임인 레거시 클럽 (Legacy Club) 운영을 통해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다. 출범 1주년을 맞는 레거시 클럽은 개인 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과 단체에 치중돼 있는 국내 기부 체계를 재조성하며 좀 더 성숙한 개인 기부 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레거시 클럽은 현재 52명의 회원 가입을 통해 68억 8000만 원의 누적 기부약정액을 달성하며 건강한 사회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40

* 레거시 클럽 멤버십 안내

- 서약회원: 유산 기부를 이행하겠다고 서약한 개인 기부자
- 정회원: 유산기부를 법적 공증한 개인 기부자
- 특별회원: 가족이 사후에 고인의 명의로 기탁한 경우(고인이 회원으로 등재)

45

* 참여방법

- 유산 기부 상담(전화, 방문) → 유산기부 서약 → 법적 유언 공증 → 유언 집행

행복한 유산기부 성남시 1호 홍계향 할머니, <사랑의 열매> (2014)

¹ 유산: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² 공증: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³ 수급자: 급여, 연금, 배급 따위를 받는 사람

- 이 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글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쓰십시오.

- 이 글에 사용된 언어와 시각적 형식에 대해 분석하고 그 효과에 대해 논하십시오.